2013년 제5호
2013년 8월 23일 (금)
한농연중앙연합회
회원지원센터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전화 : (070)7165-0017
전송 : (02)3401-6549
http://kaff.or.kr
kaff0001@gmail.com

농업 · 농산업 관련 주요 동향

○ 서울 가락시장,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정의 변경 추진…"국내 산포장농산물"이 아닌 "완전규격출하품"으로

- 가락시장(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)과 서울시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적돼 왔던 규격출하품의 정의를 "국내산포장농산물"이 아닌 "완전규격출하품"으로 변경하기 위해 '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'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
- 가락시장과 서울시는 오는 9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 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. 서울시(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)는 도매시장에 팔렛 적재 출하품(완전규격출하품)과 포장출하품(기본규격출하품)에 대한 표준하역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역기계화와 물류효율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·지적해 왔음
- 이에 중도매인 및 도매법인들은 농민 및 출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높으며, 공동출하·공동계산제의 완전 정착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방침이 무리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

○ 쌀 관세화 관련 농경연 여론조사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

- 농경연(박동규 박사)이 8월 13일 쌀 관세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, 전농·전여농·한국농정신문이 8월 20일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여는 등, 쌀 관세화 관련 논의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
- 농경연 박동규 박사 등은 "쌀 관세화를 조기에 추진해야만 TRQ 저율관세 의무수입 물량(밥쌀, 가공용쌀)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. 관세화 이행 이후에는 TRQ 이외의 물량은 수입되기 거의 불가능할 것"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음
- 농경연은 8월 13일 쌀 표본농가 1,28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, 447명(34.9%)은 "관세화 자체를 모른다"고 답변하여, 일선 농민들은 쌀 관세화 전환이 무엇인지,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
- 그럼에도 농경연은 관세화에 찬성하는 농가가 전체 77.7%, 조기 관세화에 찬성하는 농가가 59.8%라는 식으로 발표하면서도, 정작 이들 표본농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, 질문 내용은 무엇이며 신뢰수준 및 표준오차 등은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
- 이 때문에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는 물론, 민간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까지도, 농경연 박동규 박사의 연구 결과 및 설문조사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
- 이같은 상황에 내일신문(8월 19일자, 1면, 13면)은 "정부 예상보다 낮은 200%대 관세율로 개방될 수도 있다"고 보도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됨
- "정부는 1986~88년간 쌀 수입 실적이 없다는 입장이나, 실제로는 연평균 790톤의 쌀을 톤당 340 달러에 수입해 쌀과자를 만들어 수출한 실적이 있다"는 게 내일신문(정연근 기자)의 보도 내용의 핵심. 이 경우 정부 예상치(400% 이상)와는 달리 200%대의 관세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내일신문의 진단임. 이에 정부와 농경연 등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임
- 더욱이 향후 한-미, 한-중 FTA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 이행이 이뤄질 경우 각 FTA 협정문 내 쌀 관세율에 관한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많은 상태임
- **한농연은 이미 회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"소득정책, 수급안정정책 등의 완벽한 국내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쌀 관세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"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음**
- **아울러 농식품부(식량정책과) 또한 올해 내 조기 관세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, 2014년에 들어서야 쌀 관세화 논란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**

8월 4주차 농업 부문 세제개편안 토론회 및 농업인교류센터 일정 안내

○ 8월 26일(월) 오후 2시, "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농업계 입장 정립을 위한 토론회" 개최

-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농연이 주관하는 "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관련 농업계 입장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"가 오는 8월 26일(월)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
- 이 토론회에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권익과 직결되는 ▲농업소득세 부과 ▲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▲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임

○ 농업인교류센터 "찾아가는 서비스" 일정 안내

- 한여농전국대회(경주시) : 8월 26일(월), 경주 엑스포공원
- 충남 보령시 : 8월 29일(목), 보령시 농업기술센터
- 광주광역시 : 9월 5일(목),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

○ 농업인교류센터 "농업인법률학교" 일정 안내

- 경북대학교 : 8월 29일(목), 경북대학교 농생대
- 전남도연합회 : 9월 4일(수), 장소 미정

○ 농업인교류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법률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"사건심의위원회"를 운영중입니다

- 한농연 회원 및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익적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자문 변호사 및 전문 자문가들이 참여하여 소송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
※ 찾아가는 서비스, 농업인법률학교, 사건심의위원회 관련 문의 → 농업인교류센터 오준호 대리 (070-7165-0013), 한농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"농터"로도 신청을 받습니다.